

석회동굴이 죽어가!

5억년 전에 만들어진 석회동굴이 최근 죽어간다는데 왜 그럴까?
 오늘이라도 동굴안의 분수를 없애 열원(熱源)을 줄이고
 온도를 낮추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하자.
 또 오늘부터 입장자 수도 줄이자. 그것이 바로
 얼마되지 않는 동굴을 더 오래, 더 잘 보는 지름길인 것을...



최근 일간신문에 강원도에 흩어진 석회동굴들이 죽어간다는 내용이 머릿기사로 보도된 적이 있었다. 석회동굴이 왜 죽어가는가?

강원도 석회동굴들은 5억년 전에 만들어진 고생대 석회암층이 지하수에 녹아나간 다음 다시 지하수에 녹아있던 석회성분이 침전해 만들어졌다. 지하수 속에 녹아있던 석회성분이 온도와 조건에 따라 다시 가라앉아 석순과 종유석과 보기 힘들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물체들이 만들어진다. 또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므로 식물도 성장하지 못했고 온도와 습도가 오랫동안 일정해 동굴에 특유한 생물들이 서식하게 된 그야말로 대자연의 조화이고 진기한 작품들이다. 그러나 최근 사람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수천만년 이어지던 환경이 깨어져 대자연이 이룩한 아름다움이 너무 빨리 사라지게 되어 안타깝다. 사람이 드나들려면 불을 켜야하고 숨쉴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전등의 열과 체온으로 습도가 낮아진다. 빛이 생기면서 남조류가 발달하기 시작해 석회동굴 벽이 검은 색으로 변한다. 물론 사람의 옷과 신을 통해 외부의 세균이 침입한다. 게다가 지방 관리 또는 설계업자가 동굴 속에서 보는 분수가 유난히 인상에 남을 것이라 생각해서인지 화려한 조명과 함께 웬 분수를 동굴 속에 만들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또 영악한 사람들이 귀한 종유석을 잘라가고 뜯어간다. 한번 생긴 남조류는 없어지기 힘들며 없어진 동굴생물들이 돌아오고 종유석들이 새로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잘 알다시피 자연이란 자연 그대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석회동굴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귀한 자연을 오래 두고 보고 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더 성숙해져야 한다. 종유석은 석회동굴에 있을 때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뜯어간 종유석은 종유석이

아니라 부서진 돌맹이일 뿐이고 자신이 자연을 파괴했다는 물증에 지나지 않아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자랑도 못할 것이다. 설혹 자기가 떼어오지 않고 사다놓아도 하나도 기쁘지 않을 것이며 장식품도 되지도 못한다. 온도와 습도와 공기성분이 달라 검거나 누렇게 변색되는 것이 보통이다.

내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들어가 보았던 원시인의 벽화가 있는 동굴은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에 그 벽화가 사라질까봐 하루에 입장객을 7백명으로 제한했다. 그 사람들이 입장자 수를 늘려 수입을 많이 만드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인류의 역사이자 귀한 문화재가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지혜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이다. 이제 그만 사리사욕을 버리고 지방자치에 필요한 수입에 대한 욕심을 약간 버리자.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탐욕스러운가? 그렇지 않다! 오늘이라도 석회동굴안의 분수를 없애고 열원(熱源)을 줄여 온도를 낮추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하자. 또 입장자 수를 줄이고 만약 그래서 올 여름에 동굴을 구경하지 못했다면 내년에 다시 오자. 또 종유석을 기념품으로 팔지도 사지도 말자! 지방수입이 적어지면 적어지는 대로 예산을 짜자. 너무 영악해지지 말고 조금 모자라게, 사실은 현명하게 살아보자. 그것이 바로 얼마 되지 않는 동굴들을 더 오래, 더 잘 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자. 석회동굴은 우리만 보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①7

蔣 舜 權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